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9월 22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치매관리팀장 이지영 ☎440-2981 • 담당자 심연희 ☎440-29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SSG랜더스-치매환자 가족과 함께 치매극복 의지 다져
- 21일,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 SSG랜더스 홈경기 이벤트 -
-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1일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SSG 랜더스와 함께 인천SSG 랜더스필드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가치함께 야구장’을 주제를 가지고 의미 있고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인천 치매가족 연합 자조모임 ‘물망초’ 회원들은 애국가 하모니카 연주와 제창에 참여했고, 초로기 치매 환자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각각 시구와 시타에 참여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활기찬 사회활동 참여를 응원했다. 200여 명의 환자와 가족·종사자들도 함께 경기를 응원하며 치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치매 파트너 캐릭터 ‘단비’를 부착하고, 경기 중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에게는 ‘단비’캐릭터 인형을 증정했다.

또한, 경기 전 1루 앞 광장에서는 군·구 치매안심센터와 제1·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12개의 다양한 기관이 체험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벤트 부스에서는 치매 파트너 캐릭터 ‘단비’와 SSG랜더스의 마스코트 ‘랜디’가 새겨진 손수건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인천시는 치매예방관리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 단체 2개소와 개인 8명에게 표창도 이뤄지며, 일선에서의 치매관리정책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이 한데 모였다”며 “스포츠를 즐기며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되길 바라며,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게 됐다. 평가는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효과 제고를 목표로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가치매관리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를 인정받았다.

치매 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매인식개선, 예방 및 조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1995년)한 날이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 ‘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